

전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산업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40억원을 지원받아 사회적경제의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사업자로 전북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국정과제(26-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달성에 필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기업의 주기적 성장자원을 받는 창업·보육, 인력양성, 공동장비 활용,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을 집적한 핵심거점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주민참여, 사회적가치 확산 및 향후 활용도 등 사업취지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사위원(8명) 전원 지원적격 승인 판정을 받아 선정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2017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과 개별조직·지원조직 등을 집적화한 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을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건의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얻어냈다.

전북도는 이번 산업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전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차년도인 2019년에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

진하고, 혁신타운 공간구성 및 내·외부 기업 연계방안 등은 사회적경제기업·조직, 당사자조직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시설별 기능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주희망기업과 공동활용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혁신타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2차년도인 2020년에는 현재 폐교건물 리모델링을 완공과 신축건물 2개동을 착공할 계획이며, 혁신타운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3차년도인 2021년에는 건축공사를 완공한 후, 공동활용장비 구입,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을 입주시켜 혁신타운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혁신타운 부지는 군산시 옥구읍 소재 구 상평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에 조성된다. /김진성 기자



농촌진흥청 '블랙데이' 홍보 행사

우리 잡곡의 기능과 효능을 홍보하는 '웰빙 시대! 블랙 잡곡으로 건강 챙기세요'가 11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연구원들이 검은색 계열로 만든 잡곡 강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전북의 친환경 자동차부품, 세계로 도약

자동차융합기술원, 영국·독일 등 글로벌 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은 독일과 영국에서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도내 상용 및 특장차 관련 기업 10개사와 함께 독일 등을 방문 중인 이성수 원장은 독일 티유브이 슈드, 영국 밀브록 주행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독일 티유브이 슈드, 영국 밀브록 주행시험장은 이

번 협약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분야의 기술개발, 시험평가 등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량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교류와 상호 컨설팅을 통해 관련 분야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교환하는 등 기관 간 협력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본격적으로 시험가동한 '새만금주행시험장(SMPG)'을 기반으로 해외 우수기술과 기술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 전북이 미

래상용차 산업을 선도해 관련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유호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국제인증 분야 확대가 이뤄져 도내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자동차기술원장은 "내년부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어 관련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농기원, 오늘 돌발병해충 대응강화 워크숍 개최

바이러스 현장진단 키트 분양

전북도농업기술원(김학주 원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 대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늘 워크숍을 개최하고 병해충 진단 요령과 바이러스 현장진단키트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바이러스의 특이 항원을 이용해 진단하는데, 감염식물의 즙액을 진단키트에 3~4방울 떨어뜨려주면 농가 현장에서 2분 내에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휴대용 진단도구이다.

이 진단키트는 농촌진흥청(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전북농기원은 2000년부터 시·군 농업기

술센터에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분양해 왔다.

올해 분양할 진단키트는 수박에 발생하는 멜론과자반점바이러스-수박계통 1종이 추가되고 360점이 늘어난 총 15종 2,810점이며 그중에서도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등 발병이 많은 바이러스 위주로 진단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된 키트는 고추모를바이러스(PepMoV),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 등 원예작물 바이러스 병 감염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수박, 오이, 멜론, 고추, 토마토 등 채소작물 총 10품목에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때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발병주 제거, 매개충 방제, 주변잡초 방제 등 맞춤 처방을 통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소바이러스병 진단 및 예방교육과 현장에서 매개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 진단키트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기술원 최민경 박사는 "워크숍을 통하여 농업현장에서 진단키트가 바이러스병 적기 방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병해충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도·시·군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북도,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전북도내 전 시군에서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

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집중 근절 운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4만원)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설치된 4개 불법 주정차 금

지구역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전북도는 제도 시행을 위해 14개 전 시군에서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도 이미 마쳤으며, 전주시 등 대부분 지역에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 수 있게 보조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 등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성훈 기자

방각본 고전소설 통해 조선의 출판문화에 한걸음 더 가까이

완판본 책방 교실 특별 강연 이달 24일 시작... 참가비 무료

방각본 고전소설을 통해 조선의 출판문화에 대해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특별 강연 '완판본 책방(冊房) 교실'이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강은 '조선의 출판문화, 방각본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4월부터 7월까지 월 1회 저녁 7시, 총 4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월 1회 진행되는 완판본 책방 교실은 이태영(전북대 국문과) 교수, 임태용(강원대 국문과) 교수, 서해은(경북대 국문과) 교수, 김영진(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4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소설, 방각본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조선의 출판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

한다.

방각본은 조선시대에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되었던 책을 칭한다. 지역(坊)에서 발행되었으며 목판으로 새겨(刻) 책을 간행했기 때문에 방각본(坊刻本)이라 불린다. 방각본은 지역에 따라 전주 완판본(完板本), 서울 경판본(京板本), 안성 안성판본(安城板本)으로 구별해 지칭된다.

방각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했기 때문에 대중적인 기호에 맞는 책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방각본의 특성은 자연히 대중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는 소설(小說)과 이어진다.

방각본 출판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번 강연의 일정은 오는

24일 이태영 교수의 '고전소설 속 전라방언 이야기-열여춘향수절가', 5월 29일 임태용 교수의 '완판본 <구운몽>(한글본)의 인물 형상과 주제 의식', 6월 26일 서해은 교수의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7월 24일 김영진 교수의 '전등신화구해(鉤燈新話句解)와 조선 후기 출판문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준영 관장은 "고전소설 속 이야기와 함께 조선 후기 방각본의 출판, 유통, 간행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강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완판본문화관(063-231-2212~3)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